

광주 근대 건축물 보존 대책 시급하다

18년 전 100곳 전수조사...20곳 철거·55곳 제대로 관리 안돼 이용섭 시장 "안정적 관리 체계 구축...관광 자원 연계하겠다" 고층건물 화재 대응 부실...“내년 국고보조로 장비 구입할 것”

21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의 근대 건축물 보존·관리 문제와 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섭 시장은 “안정적 관리 체계 구축...관광 자원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고층건물 화재 대응 부실... “내년 국고보조로 장비 구입할 것”

광주시는 당시 전수 조사를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 100곳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조대 부고 본관, 옛 전남경찰청 민원실, 대우전기, 조흥은행 총장지점 등 20곳이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철거됐다. 55곳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로 지정·등록돼 보존·관리 중인 근대건축물은 25곳에 불과하다. 전남·일신방직, 북동성당, 중앙초교 본관 등 7곳은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도 우려되고 있다. 장 의원은 “근대 건축물과 관련 담당 부

서가 사업별로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고, 근대 건축물 보존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조차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대건축물에는 광주의 역사, 문화, 사회, 생활 등이 담겨 있어 다음 세대에 보존해 물려줘야 할 문화재”라며 “광주시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을 직접 또는 기금을 운용해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전역에 분포된 근대건축물을 조사하고 안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 관광 자원 연계 및 도시 재생 사업 자료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황현택(서구4)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에 30층 이상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대책을 촉구했

다. 황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30층 이상 건축물은 100동에 이르고, 시공중인 건축물도 69동에 이른다. 하지만, 광주시에는 고가 사다리차 5대와 골절 사다리차 5대만을 보유하고 있다. 고가 사다리차도 전계 높이가 46m~57m로 지상 15층에서 19층까지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황 의원은 “고층 건물의 화재 예방과 대응 대책이 부실하다”면서 “관련 장비 구입 등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소방청에서는 70m급 고가 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는 9개 사·도에 대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소방청 계획과 연계해 내년 초부터 즉시 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045 탄소 중립’ 광주시에 감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타 지방정부에 이정표 제시”

환경부가 2045년 탄소 중립·에너지 자립 달성을 선언한 광주시에 감사와 지지의 마음을 전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광주시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발표한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을 위한 광주형 AI-그린뉴딜’ 전략을 듣고 감사와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광주형 AI-그린뉴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탄소 중립 선언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선진 사례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 장관은 특히 “광주시의 2030년 기업 RE(Renewable Energy) 100, 2035년 광주 RE 100 등을 통한 2045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는 다른 지방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한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시에서 디딤돌을 놓아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예산 지원, 제도 마련 등 정부 협조가 절실하다”며 “광주시의 탄소 중립 선언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선진 사례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24회 도민의 날’ 전남도 첫 독립행사

22~25일 여수박람회장 등서

전남도는 22일부터 4일간 ‘제24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전남, 희망으로 있다’라는 주제로 전남도청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도민의 날’ 기념식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과 병행 추진됐으나, 올해 처음으로 독립행사로 개최한다.

22일 전남도청 잔디광장에서 ‘전남, 천년의 빛 미디어 파사드’ 점등식을 갖고, 도청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4일간 상영한다. 도내 관공서 건물에 대규모 미디어 파사드를 상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작품은 전남의 자랑스런 역사·문화와 민선 7기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도민 행복시대’ 등 내용을 담아 화려한 빛과 음악으로 연출된다. 25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도민의 날 기념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시장·군수, 각계 기관·단체장, 호남향우회, 새천년인재,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기념식은 ▲기념영상 상영 ▲도민현장 낭독 ▲자랑스런 전남인 시상 ▲도지사 기념사 ▲축하공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결의 ▲도·시·군 화합 세리머니 등으로 꾸러졌다. 특히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지자체·지방의회·교육계·민간의 결의서는 COP28 유치 범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l@



친환경 선박산업, 청정전남이 선도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국내 조선해양분야 최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친환경 선박산업, 청정전남이 선도한다’를 체결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친환경 선박의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NG선박 극저온 화물창(저장탱크)’의 국산화 필요성이 절실한 관련기관 및 기업이 실증사업 및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 올 예비사회적기업 40개...일자리 창출 300여명

하반기 23개 신규 지정

전남도가 올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3개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17개소를 포함해 모두 40개의 기업이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됐으며, 이를 통해 3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전남도내 사회적기업은 모두 297개로 늘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기업들의 참여가 많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 지정된 기업들은 제조와 유통, 배송, 위생분야 등에서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공간 정리수납 컨설팅, 광고 디자인 등 콘텐츠 사업을 비롯 목공예 교육 및 만화도·고령자 대상 교육서비스 등 교육사업, 방역 소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진입해 전남지역의 취약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 한해 재정지원 사업으로 총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화사업 등에 사업비 81억원이 투입됐다. 올 하반기에도 공모를 진행해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305명(신규 76명, 기존 229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

해 22억원, 기업의 사업개발 및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121개 기업 대상으로 1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재 전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672개로 민선 7기 사회적경제기업 2000개 육성을 목표로 한 걸음 다가섰다. 3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현재 297개가 지정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성열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남의 사회적경제가 눈에 띄게 도약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역 특성에 맞춘 사회적기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l@

광주시 ‘열린 정부 파트너십’ 가입

서울시 이어 두 번째

광주시는 “정부 투명성, 시민 참여 증진, 반부패를 위한 국제 협의회인 ‘열린 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OGP 지방정부 프로그램에는 세계 100개 도시가 신청해 1, 2차 평가를 거쳐 30곳이 선정됐다. OGP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2011년 유엔 총회 연설을 계기로 출범해 78개 국가, 20개 도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방정부 프로그램 가입 도시 확대 계획에 따라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YMCA 등 시민사회와 공동실천의 제로 ‘디지털 그린뉴딜 기반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력 모델 구축’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민선7기 시장가치인 혁신·소

통·청렴에 기반을 둔 정책 노후를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가입 도시들과 공유하고 다른 도시 시민사회와도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후위기 등 국제적 이슈에 시민사회와 협력해 해외 도시들과 공동 대응하는 공동도시선언 등을 통해 성숙된 열린 시민사회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OGP 홈페이지와 연동된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제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때, 세계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열린 정부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가입을 계기로 국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신규임용자 28명 수시인사 단행

코로나 적기 대응 보건·시설직렬 등 우선 임용

광주시는 21일자로 신규임용자 28명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및 시정 현안 사업 적기 대응을 위해 2020년 제1회 광주시 신규 공채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 중 직무교육을 마친 보건·간호직, 보건연구사 및 공업·시설직렬 등 28명을 우선 임용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에 앞서 지난 20일 시정 비즈니스

룸에서 열린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공직은 헌신, 봉사, 절제하는 자리”라면서 “공직 가치관을 확실하게 확립해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번 신규자 수시인사에 이어 11월 중 행정직렬 등 기본교육을 마친 신규임용자에 대한 후속 수시인사를 시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